



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
(58689)목포시 비파로 64(상동) 한솔빌딩 5층 T.061-283-4571 F.0303-0955-4571 www.okmokpo.or.kr

■ 공동대표: 송영종, 김신규, 박승욱, 조순형 ■ 집행위원장: 윤치술

■ 정책위원장: 하상복 ■ 무안군민회장 : 조기석 ■ 간사: 김창모

수신	각 언론사
발신	목포경실련
문의	목포경실련 (김창모 간사 / 061-283-4571, 010-9143-0728, fax:0303-0955-4571)
일자	2017. 04. 04(목).
제목	[논평]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(총1매)

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

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.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(4일)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<목포경실련>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.

김철주 무안군수의 혐의는 제3자 뇌물취득·뇌물수수 2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. **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, 김철주 무안군수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.** 이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친형을 비롯해 당시 지적담당 공무원, 수행비서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. 증거인멸도 충분한 상황이라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.

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. 한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뇌물수수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.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와 연안정비사업의 편익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실제 무안군이 발주한 해당사업을 설계변경 하는 수법을 통해 부풀리기를 자행했다.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에서 기사회생했던 기억은 온데간데없다.

김철주 군수가 구속된 만큼 검찰은 친인척,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.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첫 걸음의 출발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다.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(5등급)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,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, 바로 현재 무안군의 지표다. 부패지수 위험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. <끝>

“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, 비영리, 비당파를 원칙으로 하는 대안중심 시민단체입니다.